사상의학회지
J. of. Const. Med.
Vol.6. No.1. 1994.

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대한 硏究

宋一炳*

서 론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泛論에서 "蓋有病者 明知其證則 必不可不服藥이요. 無病者 雖明知其證 必不可服藥이라" 하여 四象人의 生理的 證과 病理的 證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四象人 辨證論〉은 四象人의 生理的 辨證(體質證)과 病理的 辨證(體質病證)을 함께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旣存의 證治醫學에서는 대부분 病理現象을 中心으로 辨證施治를 論하여 오고 있으나 四象醫學에서는 生理現象을 中心으로 體質辨證과 함께 體質病證을 論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許浚은 최초로 〈東醫寶鑑 身形篇〉을 통하여 個體의 生理的 差等性을 說明하고 이를 疾病의 診斷과 健康의 生理的 養生에 應用하였는데, 이는 生理的 辨證을 最初로 試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生理的 辨證을 說明하기 위하여 "氣裏形表"의 精神인 形象辨證의 方法을 導入하여 "身形篇"을 說明하고 있는데 〈東醫寶鑑 雜病門〉에서도 病證 說明에 "形證病證"[9][10]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 醫學의 모든 生理나 病理現象을 形象辨證 方法으로 說明하려는 意圖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東武公은 〈醫源論〉[4]에서 許浚의 醫學精神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四象醫學의 成立過程에서 許浚의 辨證精神이 크게 影響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著者는 이러한 背景을 안고 출발한 四象醫學의 辨證精神이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서 어떻게 추구되었나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東武公의 本體論的 認識方法

東武公은 〈格致藁·反誠箴〉에서 "太極을 心이라 하고 兩儀를 心身이라 하고 四象을 事心身物이라"하여 그의 本體論的 立場을 說明하고 있다.

〈周易〉에서 四象의 意味는 八卦로 나누어지게 되는 中間者에 지나지 않지만 東武의 四象醫學에서는 더 以上 分化하지 않는 實體的 槪念으로 事心身物을 提示하고 있어, 이는 宇宙의 構成的 要素, 發生變化的 要素, 自體 調和的 要素, 物象으로서의 表象的 要素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表象的 要素를 갖고 있는 모든 物象現象은 事心身物로 歸納 說明되고 있고 宇宙現象, 社會現象, 人體 生理現象을 說明하는데 있어서도 事心身物의 要約精神으로 說明되고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www.kci.go.kr

있다.

事心身物의 本體論的 立場에서 東武公은 宇宙의 四元構造를 天人性命으로 說明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宇宙의 構成的 要素로서의 "事物"의 天과 "心身"의 人의 관계로 要約되고 宇宙의 現象的 要素로서 "事心"의 性과 "身物"의 命의 관계로 說明되고 있다. 社會現象의 四元構造도 慧覺인 仁義禮智(事)와 忠孝友悌(心)가 있고 資業인 士農工商(身)과 田宅邦國(物)이 있다고 보았다. 人體의 四元構造도 耳目鼻口(事)와 肺脾肝腎(心) 그리고 頭肩腰臀(身)과 頷臆臍腹(物)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 (표 1-2)

그러나 事心身物이 單獨으로 獨立해서 存在할 수 없고 반드시 太極의 心과 兩儀인 心身이 合해서 裏氣가 되어 內面的으로 뒷받침이 있어야 四象인 事心身物이 表形이 되어 겉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東武哲學의 本體論이다. (표 1-1)

특히 醫學的 측면에서 東武公의 本體論的 認識體系는 기존의 인식체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 시켰다. 먼저 人體의 外部 現象的要素를 관찰하는데 있어, 단순히 음양론에 따른 旣存醫學의 心身二分法的 認識에서, 事心身物의 四分法的 認識體系로 細分化하여 說明하고 이를 다시 事物과 心身, 또는 事心과 身物의 관계로 要約하였다. (이하 橫的 認識方法이라 한다.)

또 人體의 內部 臟理와 生理現象을 파악하는 인식체계에도 차이가 있다. 즉 內經의 氣裏形表정신이 氣와 形의 直接대응관계인 二段階的 "氣裏形表"의 說明方法을 취하고 있다면, 李濟馬는 內經이 外形은 약간 얻었으나 臟理는 얻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氣裏로서 太極心과 兩儀心身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形表가 四象(事心身物)이 되는 三段階的 "氣裏形表"의 說明方法으로 발전하였다. (이하 縱的 認識方法이라 한다.)

즉 太極의 心이 四象으로 직접 形化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兩儀인 心身의 도움을 받아 事心身物로 形化한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橫的 縱的 認識體系의 結合은 立體的인 形象辨證體系를 可能하게 만들어 어떠한 條件의 生理的, 病理的 現象이라도 分析 說明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本體論的 認識方法은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辨證精神에 重要한 骨格的 要素가 된다고 생각된다.

2. 四象人 體質證의 成立過程

東武公은 "나는 前人들이 지은 著述의 도움을 받아 우연히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얻어 東醫壽世保元을 지을 수 있었다."[1]고 記述하였고, 〈靈樞〉에 太少陰陽五行人論이 있는데 外形은 簡略하게 얻고 있지만 藏理는 아직 얻지 못하였다"[2]고 말하고 있어 四象人의 臟腑性理(臟理)가 四象體質證을 決定하는 重要한 要因임을 말하고 있다.

本體論의 縱的 認識體系인 氣裡形表의 三段階的 說明方法을 引用하면 "形表"인 外形은 四象 즉 事心身物에 該當되고 "氣裏"인 臟腑性理는 太極 心과 兩儀 心身에 該當된다고 본다.

따라서 心을 太極에 대입하고 "人趨心慾"[7]과 "人稟臟理"[6]를 兩儀 心身에 代入해서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完成시키고, 完成된 臟腑性理를 바탕으로 外形인 四象人의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 材幹"을 대입하면 四象人의 體質證이 成立되는 것이다. (표 2-1)

東武公은 本人이 말했듯이 "前人의 著述로 因하여 우연히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얻었다"[1]고 하였는데, 특히 〈東醫寶鑑 集例〉에서 나타난 許浚의 生理的 辨證精神이 東武公의 縱的 認識體系와 완전 一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를 소개하면 "臣이 생각하건데 사람의 몸에는 안으로 五臟六腑가 있고 밖으로 筋 骨 肌肉 血脈 皮膚가 있어 그 形을 이루니 精氣神이 또한 臟腑百體의 主人이 된다"(8) 라고 하여 精氣神이 太極이되고 五臟六腑가 兩儀가 되어 겉으로는 筋骨 肌肉 血脈 皮膚가 外形이 된다고 說明하고 있어 東武公의 本體論的 認識方法과 같은 認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許浚의 生理的 辨證精神이

www.kci.go.kr

四象人의 體質證 成立過程에 직접 影響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따라서 四象人 體質證의 成立은 本體論의 縱的 認識方法에서 그 說明이 가능했지만, 完成된 體質證의 辨證方法은 外部에 나타나고 있는 現象을 가지고 辨證해야하기 때문에 本體論의 橫的 認識方法이 필요한 것이다. (표 2-2)

東武公은 〈四象人 辨證論〉에서 體質證을 辨證하기 위해서 四象人의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과 四象人의 恒心과 完實無病 條件을 提示하였는데, 이와같이 橫的 認識方法를 통하여 現象을 把握하고 이를 이용하여 內的인 臟腑性理를 確認하는 것이 體質證의 辨證精神인 것이다. 이와같이 橫的 認識方法과 縱的 認識方法은 辨證過程을 說明 할 수 있는 서로 補完關係의 認識方法임을 알 수 있다.

3. 四象人의 體質病證의 成立過程

東武公은 〈辨證論〉에서 健康한 生理現象의 조건과 病理現象의 조건을 精神과 肉體的 立場에서 말하고 있다. 즉 健康한 生理的 條件으로는 四象人의 "恒心"과 "完實無病"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깨져 病理條件이 되면 "恒心의 尤甚證"과 "大病"의 條件이 나타나고, 이보다 病이 더욱 악화되면 "性情偏急"의 心理狀態와 "重病證"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하여 각각 輕證 重證 險證 危證의 개념으로 體質病證을 서술하고 있다.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관계를 本體論의 縱的 認識方法으로 要約한다면, 體質證의 臟腑性理를 太極으로, 內傷, 外感, 七情의 病理要因을 兩儀로 보고 이들을 함께 모아 "氣裏"로 요약할 수 있고 體質病證의 현상들을 "形表"로 간주할 수 있다. (표 3-1)

이것을 다시 橫的認識體系로 要約한다면 體質病證의 현상들을 크게 表病證과 裏病證으로 나누고 여기에 寒熱病證 心身病證 順逆病證의 개념을 포괄시켜 하나의 "形證病證"의 精神으로 要約 說明하고 이들을 다시 輕證 重證 險證 危證의 四大證으로 나누어 區分하고 있다. (표 3-2)

體質病證에서 表裏病證에 대한 調節精神은 四象人의 臟腑性理가 서로 달라 그 運營方法에서 서로 陰陽升降緩速에 대한 차이가 있게 되고, 四象人 고유한 病證體系가 그에 따른 運營藥理가 따로 있게 되어서 東武公은 恒常 四象人의 "病證藥理"[3][4]란 말을 使用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體質證과 體質病證과 病證藥理의 개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어지는 連續的 現象인 것이다. (표 3-3)

以上에서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서도 本體論的 認識體系의 辨證精神이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東武公은 原理的 추구 입장에서 만족하지 않고 歷代 醫家들의 醫學的 體驗 속에서 歸納的으로 體質病證藥理精神을 發掘하여 體質病證을 설명하고 있는데[4] 이는 醫學的 原理와 體驗的 現實 사이의 거리를 좁혀 四象醫學을 보다 實證的醫學으로 만들려는 意圖인 것이다. (표 3-4)

東武公은 1882년 46歲때에 獨行篇을 완성하였는데 獨行篇 속에서 四象人의 心慾이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어 四象의 體質證이나 體質病證의 성립은 46歲 以後부터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그는 少陽人 亡陰證의 體驗을 1875年(乙亥)[11]39歲때 처음으로 經驗하여 六味地黃湯을 썼다고 記錄하고 있는데, 이때 體驗은 體質病證이 成立되기 前에 이루어진 少陽人의 體驗이란 것을 알 수 있다. 東武公은 1894年(甲午)58歲때부터 東醫壽世保元을 完成하고 1895年(乙未)59歲때 부터 1900年(庚子) 64歲 돌아가실 때까지 體質病證藥理에 대한 體驗을 追加 記錄한것을 보게 되는데[12] 그가 얼마나 體質病證藥理의 實證的 完成을 위하여 애써왔나 알 수 있다.

결 론

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과 그 追求

www.kci.go.kr

精神에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서 東武公의 本體論的 認識體系의 辨證精神에 의해서 追求 되었음을 알 수 있고 本體論的 認識體系는 縱的및 橫的 認識體系의 結合으로 成立된 立體的 形象病證體系이다.

2. 形象的 辨證精神은 東醫寶鑑의 身形篇과 "內景外形"의 精神에서 그 淵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東醫寶鑑의 形象醫學精神이 四象醫學으로 繼承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體質證은 靈樞五態人論의 "若得外形而未得臟理"의 精神에서 出發하였고 이에 人稟藏理와 人趨心慾의 設定으로 臟腑性理가 完成된 것이다.

4. 體質病證은 體質證에 이어지는 病證槪念으로 東武公은 이를 證治醫學의 體驗的 醫案을 歸納的 方法으로 要約說明하고 四象醫學이 實證追求的 醫學임을 알 수 있다.

5. 四象病證藥理의 運營精神은 體質에 따른 差等的 運營精神이며 그 속에는 表裏病證의 陰陽升降緩速에 대한 差等的 調節의 意味가 있다.

6. 四象病證藥理의 完成은 體質證이 成立된 46歲 (獨行篇이 完成된 時期) 以後부터 始作해서 64歲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東武公은 새로운 認識體系의 形象醫學的 四象醫學을 完成하여 누구나 쉽게 醫學을 理解하고 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目的임을 알 수 있다.

주1. 余生於醫藥經驗五六千載後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 著得一書 名曰壽世保元. (醫源論)

주2.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而略得外形 未得臟理 蓋太少陰陽人早有古昔之見而未盡精究也. (四象人 辨證論)

주3. 蓋自神農黃帝以後 秦漢以前 病證藥理 張仲景傳之, 魏晋以後 隋唐以前 病證藥理 朱肱傳之, 宋元以後 明以前 病證藥理 李梴龔信許浚傳之 若以醫家勤勞功業論之則 當以張仲景朱肱許浚爲首而李梴龔信次之 (醫源論)

주4. 少陰人 病證藥理 張仲景 庶幾乎 昭詳發明而宋元明諸醫 盡乎昭詳發明 少陽人 病證藥理 張仲景 半乎昭詳發明而 宋元明諸醫 庶幾乎 昭詳發明 太陰人 病證藥理 張仲景 略得影子而 宋元明諸醫 太半乎昭詳發明 太陽人 病證藥理 朱震亨 略得影子而 本草略有藥理. (醫源論)

주5. 論曰 靈樞素問 假托黃帝 異怪幻惑 無足稱道 方術好事者之言 容或如是不必深責也 然 此書 亦是古人之經驗而 五臟六腑經絡針法病證修養之辨多有所啓發則 實是醫家 格致之宗主而 苗脈之所自出也 不可全數 其虛誕之罪而 廢其啓發之功也 蓋此書 亦古之聰慧博物之言 方士淵源修養之述也 其理 有可考而其說不可盡信 (醫源論)

주6. 人稟臟理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名曰太陰人 脾大而胃小者 名曰少陽人 胃大而脾小者 名曰少陰人. (四端論)

주7. 人趨心慾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 棄義而偸逸者 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 (四端論)

주8. 臣謹按 人身 內有五臟六腑 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 以成其形而 精氣神又爲藏府百體之主 故道家之三要 釋氏之四大皆爲此也. 此書先以內景精氣神臟腑爲內篇 次取外境頭面手足筋脈骨肉爲外篇 (東醫寶鑑·集例)

주9. 六經形證用藥 (太陽形證用藥, 陽明形證用藥, 少陽形證用藥, 太陰形證用藥, 少陰形證用藥, 厥陰形證用藥) (東醫寶鑑·寒門)

주10. 形證病證(霍亂形證, 浮腫形證, 脹滿形證, 消渴形證, 瘡疾形證, 瘟疫形證, 邪祟形證) (東醫寶鑑·雜病篇)

주11. 嘗治少陽人 傷寒 發狂 語證 時則乙亥年 淸明節候也 少陽人一人 得傷寒寒多熱少之病 四五日後午未辰刻 喘促短氣 伊時 經驗 未熟 但知少陽人應用

www.kci.go.kr

藥六味湯最好之理故 不敢用他藥而秖用六味湯一貼 病人喘促 卽時頓定 又數日後 病人 發狂譫語 喘促 又發 又用六味湯一貼則 喘促 雖少定而 不如前 日之 頓定矣 病人 發狂 連三日 午後喘促 又發 又用六味湯 喘促略不少定 有頃舌卷動風 口噤不語 於是而 始知六味湯之無能爲也 急煎白虎湯一貼.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

주12. 其後 又有一少陽人十七歲女兒 素證間有悖氣 食滯腹痛矣 惚一日 頭痛寒熱食滯 有醫 用蘇合元三箇薑湯調下 仍爲泄瀉日數十行十餘日不止 引飮不眠 間有譫語證 時則巳亥年冬十一月二十三日也 卽夜用生地黃石膏各六兩知母三兩 其夜 泄瀉度數減半 其翌日用荊防地黃湯加石膏四錢 二貼連服 安睡而能通小便 荊防地黃湯二貼藥力十倍於知母白虎湯可知矣 新年正月十五日能行步一里地而來見我 其後又連用荊防地黃湯加石膏一錢 至于新年三月.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

주13. 光緒 甲午四月 十三日 咸興 李濟馬 畢書于漢南山中 甲午畢書後 乙未下鄕至于庚子 因本改抄 自醫源論 至太陰人諸論 各有增刪 而其餘諸論未有增刪故 依新舊本刊行 (四象人 辨證論)

주14. 嘗見少陰人中氣病 舌卷不語 有醫 針合谷穴而其效如神 其他諸病之藥不能速效者 針能速效者有之蓋針穴亦有太少陰陽四象人應用之穴而必有升降緩速之妙 繫是不可不察 敬俟後之謹厚而好活人者 (少陰人泛論)

참고문헌

1)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서울 信一文化社 1964
2) 朴奭彦譯編 : 格致藥 서울 太陽社 1985
3)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0
4) 李乙浩 洪淳用 : 四象醫學原論 서울 壽門社
5) 成均館大學校 : 經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서울 大東文化硏究院 1965

1. 東武公의 本體論的 認識方法

(표1-1) 本體論的 認識

氣	襄	形	表
太極(心)	兩儀(心身)	四象(事心身物)	

(표 1-2) 事心身物(形表)

	事	物	心	身
宇宙四元構造論	天(物)		人(己)	
	事	物	心	身
社會四元構造論	仁義禮智(慧覺)	田宅邦國(資業)	忠孝友悌(慧覺)	士農工商(資業)
人體四元構造論	耳目鼻口(天)	頷臆臍腹(知)	肺脾肝腎(人)	頭肩腰臀(行)

www.kci.go.kr

2. 體質證

(표 2-1) 四象人 體質證의 成立過程

	氣 裏		形 表
內 經	未得臟理		若得外形
許 浚	精氣神	五臟六腑	頭面手足 筋脈骨肉
東 武	心	人趨心慾 人稟臟理	體形氣像 容貌詞氣 材幹 性質
	太 極	兩 儀	四 象

(표 2-2). 四象人 體質證의 完成

	氣 裏		形 表
	人趨心慾	人稟臟理	體形氣像
太陽人	棄禮而放縱者	肺大肝小	腦頓之起勢盛壯 腰圍之立勢孤弱
少陽人	棄智而飾私者	脾大腎小	胸襟之袍勢盛壯 膀胱之坐勢孤弱
太陰人	棄仁而極慾者	肝大肺小	腰圍之立勢盛壯 腦 頓之起勢孤弱
少陰人	棄義而偸逸者	腎大脾小	膀胱之坐勢盛壯 胸襟之袍勢孤弱

www.kci.go.kr

3. 體質病證

(표 3-1). 體質病證의 認識體系

氣 裏		形 表
太 極	兩 儀	四 象
體 質 證 〈人稟臟理·人趨心慾〉	病 因 〈外感·內傷·七情〉	形證病證 〈太陽陽明之發熱形證一也而‥‥.〉 〈太陰少陰之自利形證一也而‥‥.〉

(표 3-2). 許浚과 東武의 形證病證

	許浚의 形證病證	東武의 形證病證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形證病證	六經形證病證 (太陽形證, 陽明形證, 少陽形證, 太陰形證, 少陰形證, 厥陰形證) 雜病形證 (霍亂形證, 浮腫形證, 脹滿形證, 消渴形證, 虐疾形證, 瘟疫形證)	表病	表(順)	鬱狂證	少陽傷風證	太陽寒厥證	解㑊證
			裏(逆)	亡陽證	亡陰證	肺燥寒證	
		裏病	裏(順)	太陰證	胸膈熱證	肝燥熱證	噎膈證
			裏(逆)	少陰證	陰虛午熱證	燥澁便閉證	

www.kci.go.kr

(표 3-3) 體質證과 體質病證및 病證藥理

	體質證	體質病證		病證藥理	
	恒心 完實無病	恒心尤甚證 大病證	性情偏急 重病證	治療目標	治法
少陰人	不安定之心 飮食善化	咽喉證 虛汗, 泄瀉 飮食不化	喜好不定, 泄瀉不止臍下 必如氷冷	下陷된 기운을 上升시킨다	表病 : 升陽益氣 裏病 : 裏陰降氣
少陽人	懼心 大便善通	恐心(健忘) 大便不通	悲哀動中, 大便不通則 胸膈必如烈火	내부의 火熱을 해소한다	表病 : 表陰降氣 裏病 : 淸陽上升
太陰人	怯心 汗液通暢	怕心(怔忡) 陽强堅密	侈樂無厭, 痢病則小腸之 中焦窒塞如霧	내부의 燥熱을 해소한다	表病 : 肺陽上升 裏病 : 淸肝燥熱
太陽人	急迫之心 小便旺多	八九日大便不 通, 口中多出沫	忿怒激外, 噎膈則胃脘之 上焦散黏如風	上升된 기운을 下降시킨다	表病 : 補肝生陰 吸聚之 氣를 도와준다 (解㑊證) 裏病: 呼散之氣를 억제한다 (噎膈)

www.kci.go.kr

(표3-4)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處方과 醫案및 新定處方

A.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處方및 新定處方

1. 張仲景 處方:37處方 (少陰人 23方, 少陽人 10方, 太陰人 4方.)
2. 宋元明醫家 處方:37處方+12種藥物(少陰人 19方, 少陽人 9方, 太陰人 9방, 太陽人 藥物 12種)
3. 李濟馬 新定處方 : 67處方 (少陰人 24方, 少陽人 17方, 太陰人 24方, 太陽人 2方.)

B.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處方및 醫案

1. 張仲景 : 處方 37個, 醫案 66個 (少陰案 49, 少陽案14, 太陰案 3)
2. 朱肱活人書 : 處方 5個, 醫案 12個
3. 李梴(入門) :處方 8個, 藥物 1個, 醫案 9個
4. 龔信 (醫鑑, 萬病回春) : 處方 11個, 藥物 1個, 醫案 8個
5. 朱震亨 : 處方 2個, 醫案 5個
6. 靈樞 : 醫案 3個, 內經 : 醫案 2個
7. 危亦林 得效方 : 處方 3個, 醫案 5個
8. 醫學綱目 (明 樓英) : 醫案 4個
9. 王好古 : 處方 1個, 醫案 4個
10. 李東垣 : 處方 2個, 醫案 2個
11. 東醫醫方類聚 : 醫案 2個
12. 王叔和 : 醫案 2個
13. 成無己 (明理論) : 醫案 2個
14. 許叔微 (本事方) : 醫案 1個
15. 孫思邈 : 處方 1個, 醫案 1個
16. 扁鵲 (難經) : 醫案 1個
17. 張鷄峯 : 醫案 1個
18. 和劑局方 : 處方 4個
19. 醫學正傳 (虞博) : 處方 1個
20. 杜壬 : 醫案 1個
21. 李子健 : 醫案 1個
22. 神農本草 : 10種 藥物

www.kci.go.kr